



최적의 가치와 신속한 Time to Market 반도체 솔루션 제공

AMI Semiconductor는 첨단 의료 기기,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를 주로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서 고신뢰성, 초절전형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지역에 사무소와 설계센터를 가지고 있다.

글 | 유승목기자(chrisyoo@chips-parts.com)

1997년에 설립한 AMI Semiconductor는 실리콘 반도체 솔루션 설계 및 생산 업체이다. 첨단 통합 혼성 신호 제품, 혼성 신호 파운드리 서비스, structured 디지털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AMIS는 고객에게 최적의 가치, 신속한 Time to Market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한다.

AMIS는 디지털을 위한 두 분야의 ASIC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FPGA-conversion 비즈니스로 이를 통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50% 정도 FPGA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낮은 비용과 최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분야는 ASIC 제품과 게이트 어레이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미드레인지 ASIC 시장으로 0.18미크론 반도체 공정기술에서 0.13미크론으로 90nm에서 65nm로 낮아지는 분야로 주로 통신, 컴퓨팅, 군대와 우주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분야는 공장자동화분야와 함께 아주 큰 시장으로 AMIS는 미국내에서 디지털 ASIC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신, 방위, 우주분야의 시장 보다는 아직은 작은 시장이지만 자동차 시장도 점점 확대되는 시장으로 이 분야

에도 집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AMIS는 어레이 기반 구조의 ASICs와 셀 기반의 제품으로 2개의 제품 카테고리 가지고 있으며, 0.18미크론과 그 이하 공정은 TSMC에서 주로 제작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2개와 유럽에 2개의 팹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4, 5, 6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AMIS는 지난해 Flextronics를 인수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0.18, 0.35, 0.5미크론 기술과 게이트 어레이 제품들을 자사의 제품군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HP, 캐논 등 탄탄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지난해 매출중 AMI의 총 수익의 23%

는 아시아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해 생산된 디지털 제품(SDP)의 20%는 아시아에서 가지고 왔다.

AMIS는 0.18미크론 이하의 공정기술을 이용하고 1~2V를 사용하는 차세대 셀 기반의 제품을 2~3개월 이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활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이에 대해 마케팅 담당 부사장 빈스 홉킨(Vince Hopkin)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혼성신호 제품-터키 혼성신호제품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며 “중국 시장 역시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시장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매그나칩반도체와 초절전형 0.18미크론 반도체 공정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케팅 담당 부사장 빈스 홉킨(Vince Hopkin)은 “올해 2분기부터 매그나칩 청주 팹에서 시생산을 시작하며, 향후 적용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 빈스 홉킨(Vince Hopkin)